

## 잘 못 쓰이는 우리말



이상룡 | 본지 편집주간

### 천고마비(天高馬肥)는 추고마비(秋高馬肥)로

가을이다. 흔히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한다. 동아 새국어 사전을 보면 「추고마비」라는 단어는 없고 「천고마비」라는 단어만 있다. 그 풀이를 보면 “하늘이 높고 말(馬)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을 말할 때 수식하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천고마비」는 일본어이다. 일본어 사전에 텐(天)이란 낱말 풀이 끝에 텐(天)다카쿠(高쿠) 우마(馬) 고유(肥유) 즉 가을 하늘이 맑고 높게 개어 말은 살찌서 씩씩해진다는 뜻으로 풀이해 놓았다고 한다.

「추고마비」, 가을이 깊어 감에 따라 말은 살찌고 이때부터 북쪽 오랑캐가 침입해 오기 쉬운 철이라는 말, 그러니까 몽골족이 가을에는 말이 살찌고 활이 굳세어 변방을 침범하는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고(高)를 “높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높아지다” “쌓이다” “늘다”는 뜻도 있다. 추고마비의 추고(秋高)는 “가을이 깊어 간다”라고 해야 한다.

### 입장(立場)은 처지(處地)로

필자가 2004년도 1년간 일간지(중앙일보)를 보면서 우리말 속에 숨어든 일본어 및 외래어 조사를 해 봤는데(큰 제목과 작은 제목만) 놀랍게도 일본어 중에서 「입장」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590회) 그 다음이 역할(役割)이라는 단어였다.

「입장」은 일본말로 다치바(立場)라고 한다. 우리말로 처지이다. 처지라는 말은 “당하고 있는 형편이나 사정”을 말한다. “자네 처지가 딱하구먼”, “내 처지가 이 모양이니 부끄럽네” 등 지난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써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입장」으로 바뀌고 말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말 「처지」를 다시 찾아 써야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일본말 「다치바」를 한자로 立場이라고 적으나 원 한자말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에도 없는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자말인 줄만 알고 한자음으로 「입장」이라고 읽고 있다.

어떤 이는 태도, 주장, 의견, 체면, 따위를 써야 할 자리에 무턱대고 입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다.

## 역할(役割)은 구실로

앞서 입장이라는 용어 풀이에서 말했듯이 신문 지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로, 이도 역시 일본말이다. 필자가 젊은 시절엔 역할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6·25사변 이후에 이 말이 퍼진 것으로 안다.

한글학자 정재도 선생의 우리말 강좌를 들어보면 일본인들이 연극을 할 때 각각 맡아서 하는 일을 「야꾸」라 하고 그 「야꾸」를 나누어 맡기는 일을 「야꾸와리」라고 한다. 「와리」라는 일본말이 우리말로 「나누기」라는 뜻이기에 일본말 「야꾸와리」는 우리말로 하자면 「맡은 일 나누기」 또는 「나

누어 맡은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저마다 해야 하는 일」이란 뜻으로 쓰이게 되었으니 변질이 되어도 보통 변질이 아니다. 이렇게 「야꾸와리」라는 일본말을 일본서 한자로 「役割」이라고 적으며 한자어에서 빌어 왔을 뿐,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우리 속담에 “제 구실도 못하면서 남의 간섭한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역할」이란 일본어를 속히 버리고 “구실” “할 일” 로 바르게 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며 구실(口實)=핑계거리, 변명할 재료라는 구실과는 구별해 써야 한다.

## 책 소개



### 「세월의 나이트」

이상룡 시조집. 신국판. 10,000원

시조시인이며 사진작가이기도한 저자가 내어 놓은 시조집. 66편의 시조와 100여 장의 사진이 담겨진 시사집(試寫集)이다. 저자가 40년간 직접 촬영한 사진과 그동안 창작한 시조의 만남으로 이뤄진 시조집이 출간되기는 처음 있는 일.

### 「어깨동무 씨동무」

이상룡 동시조집. 신국판. 8,000원

아동문학가이며 시조시인이요, 사진작가이기도한 저자가 내어놓은 동시조집. 50편의 동시조와 90여 장의 사진이 담겨진 이 책자는 동시조와 사진의 조화로 동시조의 내면과 사진 영상(影像)이 어우러져 있는 시사집(試寫集)이다.

저자가 40년간 직접 촬영한 사진과 그동안 창작한 동시조의 만남으로 이뤄진 동시조집이 출간되기는 드문 일.